

콘텐츠 종량 과금으로 사업자 고민 해결



인터넷 이용자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인터넷을 통해 콘텐츠를 제공하는

CP(Content Provider) 업체의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왔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대다수 업체들은 정보 이용료를 PC통신처럼 거둬들이지 못하고 있다.

이는 과금체계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인데 '앳빌'은 CP 업체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편집자)

앳빌(abill)은 퓨처테크(대표 이상원)에서 지난해 11월 개발 완료한 인터넷 빌링시스템으로서 현재 걸음마 단계에 있는 인터넷 빌링기술을 한차원 높은 소프트웨어라 할 수 있다. 퓨처테크는 개발이후 지난 1월까지 3개월간의 시범서비스를 마쳤으며 이달부터 상용서비스에 나설 방침이다.

"인터넷의 이용 편의성과 콘텐츠의 중요성이 증대하면서 광고수익과 회원제 요금, ISP의 정액지원금 등에 의존했던 CP들의 수익으로는 양질의 콘텐츠 생성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때문에 다양한 과금방식을 지원해 이용자와 제공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과금시스템이 출현한다면 많은 CP들의 고민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원 사장의 개발배경 설명이다.

CP가 앳빌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앳빌 사이트(www.atbill.net)에서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사용하게 되며 관련 사이트의 총 사용자 정보 이용액에서 일정액의 빌링수수료를 제외한 대금을 앳빌로부터 지급받게 된다.

앳빌 서비스 특징

■ 네트워크 빌링

이용자는 앳빌사이트를 통해 제휴 콘텐츠 제공업체의 콘텐츠 사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콘텐츠 제공업체의 독자적인 인터넷 주소에 접속하여 정보를 이용해도 네트워크를 통한 빌링이 가능하다. 또한 여러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단독사이트 뿐만 아니라 다수 CP를 갖고 있는 포털, 허브사이트 등도 가능하다.

■ 정보이용 내역 추적 가능

앳빌 서비스를 통해 빌링을 하는 CP는 해당 콘텐츠를 사용하는 고객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얻을 수 있다. 그중 가장 중요한 자료는 이용자의 콘텐츠 사용 통계치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연령별, 지역별, 성별, 직업별 등으로 파악할 수 있다. CP는 이들 자료를 토대로 인터넷 마케팅을 펼치게 되어 명확한 고객요구 파악과 이를 통한 판촉활동에 매우 도움을 얻게 된다.

■ 한번의 로그인으로 모든 콘텐츠 이용 가능

앳빌 서비스에 제휴한 많은 CP들의 다양한 유료 콘텐츠에 대한 대가를 한번의 로그인으로 지불하므로 사용자 입장에서 매우 편리하다. 이는 한번의 빌링서비스 회원 가입으로 많은 제휴 CP에 대해 각각의 빌링 서비스를 가입한 것과 같은 효과를 얻는 것이다.

■ 다양한 과금방식 지원

종량과금, 정액과금, 종량과금과 정액과금을 혼합한 복합과금방식을 지원하며 HTML, 이미지 등 단순 정적파일 뿐만 아니라 cgi, java 등 동적파일에 대한 과금도 가능하다.

■ 매출 통계자료 제공

CP 인터페이스 화면에서 회원가입이나 콘텐츠 사용 통계치의 파악이 가능하고 콘텐츠 상품권의 매출이나 사용현황 등을 조회할 수 있다. 또한 CP별로 월 매출치가 별도로 작성되며 환불에 대한 통계화 내역까지 제공된다. 